

뉴욕장신 뉴스레터



제 6 호 (아버지 특집호)

2015년 5월 5일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KPCA,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NY)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http://www.nypts.org>

학장 유재도 박사 / 학감 이기백 박사 /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

학장의 글

“내 영혼의 고향” (출애굽기 3:4)



학장 유재도 박사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언제 나를 부르셨을까? 감히 내가 모세와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확실하게 불렀습니다. 1975년 1월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학입시 1차 시험에 불합격이라는 쓰라린 결과를 알고 고통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 날 저녁에 신촌의 아파트에 살던 어느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여러 명이 모여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에 모인 친구들은 다 나처럼 떨어진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는 종로에 있는 양영학원 대학입시 종합반을 일 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지각도 한번 안하고 착실하게 다니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대학입시에서 낙방을 한 것입니다.

패배감, 절망감, 좌절, 낙심, 열등감을 안고 나는 다음날 새벽에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 갔습니다. 대학 시험의 결과를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30분 정도 걸어서 집에 도착하니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하시던 대로 새벽기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마무리 기도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주춧거리다가 나는 문창호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기도를 엿들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큰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 하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저에게 자녀를 6남매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들 육 남매 중에서 한 명은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신학교에 갈게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하며 좋아서 박수를 치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는 그 시간 직전까지 단 한번도 신학교를 간다거나,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는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 그때는 아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던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새벽에 내가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를 안 들었더라면... 만약에 그날 새벽에 집으로 가는 버스를 조금만 늦게 탔었다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대학교 일차 입학시험에 멋있게 합격을 했었다더라면...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목회가 힘들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런 “만약에”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년 전, 그날 새벽에 20살의 청년인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인생의 좌절감, 패배감,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나,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갑자기 신학대학교에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때에 어디에 그리고 어떤 신학교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신학대학에 가서 입학원서를 사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두 군데 신학대학을 추천하셨는데, 광나루에 있는 신학대학이 경치가 좋다는 바람에 아무 것도 모르고 그 곳을 그냥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 후에 그 신학대학에 가서 입학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입학시험의 결과는 아버지가 가서 보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 신학대학에 합격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내 인생을 바꾸어놓을 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 나는 집과 부모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내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학년을 마치고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다가 왔고 다시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신학대학에 입학하여서 공부도 성실하게 했지만, 열심을 품고 했던 것은 몇가지의 활동이었습니다. 금요일의 병동합창단 활동, 축구 시합, 철산의 야학에서 가르치는 일,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봉사하는 일에 청년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광나루에 있는 그 신학대학은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기회가 되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그 신학교를 방문합니다. 교실도 가보고, 기숙사도 가보고, 운동장도 걸어보고, 채플실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기도 하고, 밤나무가 있는 뒷산도 걸어봅니다. 신학교 뒤로 조금 올라가면 아차산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멀리 강 물이 보입니다. 그때는 작았던 신학교가 지금은 몇 배로 커지고, 건물은 웅장하게 다 바뀌고, 학생들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신학교는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 동생의 육신이 잠들고 있는 미국의 동부 뉴저지에 있는 공동묘지를 갔다가 왔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오랫동안 사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내가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뛰시며, “할렐루야!” 하며 좋아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잠시 비석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뉴욕장로회신학대학이 우리 모두의 “영혼의 고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신학대학은 정말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아무나 쉽게 올 수가 없는 곳이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지만, 무엇보다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신학대학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역할”

-아비장 한인교회의 선교와 비전-



백성철 선교사
뉴욕신학대학 D.Min.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 M.Div.
동국대학 B.A.

1996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아비장 한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지 19년, 그 동안 이 나라와 대륙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로 서원하였던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1999년 첫 번째 쿠데타로 시작된 정정의 불안은 12년에 걸쳐 수 차례의 쿠데타 시도로 이어졌고 2011년에는 정부군과 반군 간 사상 초유 전면전이 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인 교회를 통한 복음 확장을 멈추시지 않으셨고 더불어 아비장 교회 예배당을 헌당(2010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정치의 안정으로 인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유입이 다시 시작된 지금, 아비장 한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그 안에 내재하시던 예수를 나누었던 베드로 사도와 같이, 아비장 교회의 자량은 건물과 사역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만이 우리의 자량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청지기로 받은, 이 나라와 대륙을 향해 품은 비전을 나누고자 한다.

1. 아비장 선교사역의 시발점

랄프 윈터 박사(Dr. Ralph D. Winter)는 근대 세계 선교를 3개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즉 **해안 선교**(18세기 말 William Carey로부터 시작), **내륙 선교**(19세기 중반 Hudson Taylor에 의해 시작) 그리고 20세기에 McGavran과 Townsend에 의해 시작된 **“감추인 족속”(Hidden People) 들을 위한 선교시대**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 Fuller 신학교의 Dr. Timothy K. Park 박사는 이 세 번째 시대를 미 접촉 족속(Unreached People) 선교시대라고 정의했다. 같은 나라에 공생, 공존하고 있다 할지라도 족속과 언어의 차이에 따라 복음 전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들, 미 접촉 족속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선교 전략이 요구되었고, 아비장 한인 교회의 선교 전략 역시 이러한 현지의 사정을 심분 감안하여 수립되었다.

2. 아비장 선교의 어제와 오늘

Ralph D. Winter 박사는 선교부와 현지 교회의 관계가 4가지 발전 단계를 거쳐 성장할 수 있다고 한 바, 즉 개척 단계(Pioneer Stage), 부모 단계(Parent Stage), 동반자 관계(Partner Stage) 그리고 동참자 단계(Participant Stage)라고 명명했다. 먼저, 97년부터 시작된 현지 도시 교회 개척과, 이를 통해 열매 맺게 된 Village 교회 그리고 말씀의 산실이 된 신학교 사역을 돌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비장 한인 교회선교 여정의 어제와 오늘을 나누고자 한다.

1) 개척 단계

아비장 교회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은 교회 개척(CHURCH PLANTING)에 있다.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주요 도시에 교회를 세움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했음을 볼 수 있다. 아비장 한인 교회는 1997년 Bouake 교회 개척을 필두로 현재까지 25개의 도시 교회를 개척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 도시 교회마다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었다. 특히 2000년 개교한 IPTECI 신학교는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지속적인 교회 개척의 영적 자원이 되어 주었

다. 이 도시 교회들을 통한 말씀 전파와, 지속적인 현지 의료 선교는 아비장 한인 교회가 이 나라에서 좋은 소문을 얻게 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Village 선교를 위한 Village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80개까지 늘어났었던 Village 교회는 2014년 초 창궐하기 시작한 Ebola로 인해 현재 70여개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다. 도시 교회의 중요성은 지역 선교의 전략적 거점이 되는 반면, Village 교회의 중요성은 토착 언어를 통한 선교 최후 목적지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면에서 진정한 미 접촉 족속을 위한 선교를 구현했다는 데 그 의미를 두겠다.

2) 부모 단계

아비장 한인 교회는 1998년 Cote d'Ivoire에 장로 교단과 선교 본부를 설립하였고, 현재 총회 산하 7개의 노회를 두고 있다. 교세의 확장과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의 후원 가운데, 아직은 각 개교회의 재정적 독립이 요원한 관계로 교단과 노회의 운영 및 개교회의 재정적 지원 또한 아비장 한인 교회가 주축이 되어 집행하고 있다. IPTECI 신학교 역시 아직까지는 재정적 독립을 하지 못한 관계로 아비장 한인 교회가 기도의 후원, 재정적 후원의 주체가 되어 신학교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중이다. 더불어 정기적인 성경 Seminar를 통해 교단 산하 목회자들의 지속적인 영적 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가나안 농군학교 및 보나콤 사역 체험 교육, 더불어 특정 현지 목회자들을 한국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장기간 유학시킴으로 보다 심도 깊은 말씀의 교육을 통한 영적 각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아비장 선교의 전략 적축(사역)

아비장 한인 교회의 선교는 세 개의 축(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 개의 축은 상호 보완,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며, 중요성으로 볼 때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1) 아비장 한인 교회 사역

아비장 한인 교회의 역할은 선교의 전반적인 기도의 후원과 재정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협력 교회 및 기타 단체로부터 유입되는 지원비가 있으나, 선교 재정의 90% 이상이 한인 교회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끊임없는 기도로 개 교회들과 파견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선교지 방문을 통해 각 교회의 필요 부분들을 파악하여 본 재정 이외의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현지인 교회(도시 및 Village 교회) 사역

25개의 도시 교회와 70여개의 Village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집이자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세례를 받음으로 변화된 예수의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이전의 민던 것들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로 중보하는 기도의 집으로, 심겨진 믿음이 주변 불신자들에게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말씀의 집으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다.

3) 신학교(IPTECI) 사역

장로교가 이단으로 이해되고 있던 Cote d'Ivoire에 장로교 신학교의 설립은 향후 장로교 교단이 이 나라에 뿌리 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었다. 더불어 교세의 확장으로 인한 도시 교회와 Village 교회의 증가는 신실한 주의 종의 지속적인 배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Anyama에 설립된 IPTECI 신학교로 말미암아 이 필요가 충족되었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선교 영역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4. 아비장 선교의 영향들

아비장 한인 교회가 현지인 선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내에 3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 한인 교회 성도들의 선교 동력화(Mobilization)

한인 교회의 주축이 되는 중직 및 제직들이, 선교 초창기부터 교회 개척 및 신학교 사역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선교의 동력화가 일어났고, 이제는 각자가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역할까지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2010년에는 뉴욕 장로회 신학 대학 아비장 분교가 개교되어 이를 통한 신학 공부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작년에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신학 공부를 통한 말씀의 깊은 이해는 현재 진행형인 아비장 한인선교에 더욱 더 강

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뚜렷한 목적 의식 (Missional Church)

선교 사역의 동참과 복음의 전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 아버지 한인 교회에게 선교란 더 이상 다양한 교회 내의 사역 중의 하나가 아닌, 아버지 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피 전도인의 삶에 예수를 심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버지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과, 예배 사역의 확장을 선교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확립되게 된 것이다.

3) Networking Synergy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과 선교 단체의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섬김을 통하여 Networking Synergy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프리카 주변 국가 소재 한인 교회들과의 협력에서 시작된 교류는 유럽 한인 교회들과 두바이 한인 교회를 거쳐 한국 장로회신학대와 새문안교회와의 선교 협정 및 온누리교회와 협력 선교에 대해 논의 중이다. 더 나아가 Cote d'Ivoire 내 유력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France 개신교 교단과의 협력 관계의 구축을 앞두고 있다. 협력의 영역 또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협력(미션팀 파견, 의료 선교 등)을 넘어 장기적이며 집중적인 협력 관계를(현지인 초, 중등학교 설립 및 신학대학원 과정 설립 등) 구상 중이다.

5. 아버지 선교의 내일

개척 단계 및 부모 단계를 지나 앞으로 아버지 한인 교회의 선교는 동반자 및 동참자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개교회들의 재정적인 자립을 통한 동반자, 동참자의 역할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형제로 서로를 바라보며, 협력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합심할 수 있는 단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1) 동반자 단계(Partner Stage)

- ECOWAS 15 Vision

아버지 한인 교회의 사역을 Cote d'Ivoire에 국한시키지 않고 ECOWAS 15개국으로 확장하여 각 국가 별 선교사 파견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9년 제 1호 선교사인 Salifou 목사를 Niger로 파송한데 이어 2011년 제 2호 선교사인 Clement 목사를 Bourkina Faso에 파송하여 대상국가 내에 말씀 전파에 힘쓰고 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네나 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ECOWAS 15 비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보나콤 협력 사역

한국 충북 보은에서 시작하여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보나콤 시스템을 아버지장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역으로 양계장 사역이 그 주를 이룬다. 해당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해 개교회들이 한인 교회의 지원 없이도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 해당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으며 헌신할 사역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2) 동참자 단계(Participant Stage)

- IPTECI 2020

IPTECI 신학교에 대학원 과정 및 박사 과정을 도입을 통해 명실공히 아프리카 최고의 신학교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올바른 성경 말씀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학문 교육 기관으로 발돋움 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역을 위해 France 개신교 교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책임자를 선별 중에 있다.

그 동안 행하신 일들보다 더 놀랍고 귀한 일들을 행하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며, 형제와 이웃을 시원케 하는 교회, 아프리카를 시원케 하는 교회와 일꾼들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 ♠

“Vive l’ Afrique (아프리카여 영원하라)”

김경란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뉴욕장신 M.Div.재학)

아침마다 밝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햇빛을 맞으며 잠에서 깨어난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야자수 나무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볼 때 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참, 여기가 아프리카지’라며 익숙하지 않은 아침을 맞곤 한다. 올해 49세, 결혼한지는 25년째. 프랑스로 유학 가는 남편을 만나 새롭게 시작된 내 인생은 서울, 프랑스, 서울, 부산을 옮겨 다니며 20회가 넘는 이사를 경험하였다. 20, 30대엔 ‘이사’를 하게 되면 걱정보다 ‘이번엔 또 어떤 환경으로 옮겨 어떤 사람들과 지내게 되는 걸까’하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언제쯤이면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조그만 소리로 주님께 아뢰어 보기도 했다. 그래. 주님이 계셨다.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 질그릇 같아 이미 깨져야 했던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 주신 분 예수님. 나와 남편은 모두 중태신앙이다. 성년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예수를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아 보려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

남편과 아프리카 땅을 처음 밟은 건 2009년. 프랑스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남편이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에 한국경제에 관한 강연에 초청되었을 때였다. 남편을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자비를 들여 따라나섰던 서아프리카 방문.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카메룬을 방문하며 평소 프랑스어 성경을 묵상하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남편 노력의 작은 열매를 보는 듯 했다.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 남편의 마음에 심겨질 줄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지만... 아프리카 방문은 남편의 아프리카 앓이가 되었고, 2012, 13년 2년간은 코트디부아르 한국 대사관에서의 근무로, 그리고 올해는, 원래 직업인 대학교수로 정년까지 남은 12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싶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3개월 전 코트디부아르 아버지장의 한 국립대학에 파견교수를 지원하였고 ‘마지막 이사가 되는 걸까?’라는 소망을 품어보며 대륙과 대륙을 건너왔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불박이 동역자가 된 나도 남편과 함께 아버지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성격상 계획세우기를 좋아하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주님보다 더 열심을 내었던 내게 아프리카는 그야말로 맞춤식 훈련장인 것 같다. 예측이 불가하며 약속이 무의미한 곳,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곳, 계획한 일을 성취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결국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게 되는 곳. 항상 말라리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걸 조심해야 해서 이전처럼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설칠 수 없는 곳. 정형화되고 굳어버린 생각과 습관의 틀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훈련장인 셈이다.

출국을 준비하며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 아브라함을 묵상했었다. ‘하나님 저도 익숙한 가족, 친구, 환경, 문화, 음식 등등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게 되네요. 익숙함을 떠난다는 사실이 왜 이리 절망적이라 느껴지는지요’. 그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진정으로 익숙한 것, 또 익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듯한 물음이 마음에 들어왔다. 며칠을 고민한 후 고백한 나의 대답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품’이었다. 그렇다. 아프리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보다 안락한 물질문명의 익숙함을 원했던 이기심을 고백하고 어떤 결핍도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아니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건 아버지장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면서였다. 전쟁을 겪으며 생사를 함께 한 성도 분들은 이미 가족공동체, 선교 공동체, 밥상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다. 익숙함을 떠나 생길 것 같던 불안함은 공동체 가운데 기쁨으로 변했고,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따라가며 이전에 갖지 못했던 만족과 감사를 갖게 되었다. 시골구석으로 떠났던 의료사역을 도우며 무절제하게 남용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 인지를 뼈 속까지 느낄 수 있었다. 50의 늦은 나이에 이 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정전, 단수,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부족, 전염병,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불안, 높은 물가, 언어적 어려움, 등등. 아프리카를 떠올릴 때 갖게 되는 부정적 이미지들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 상황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프리카 땅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땅! 아프리카! 이 글을 읽는 분들을 아프리카로 초청합니다. 관심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모든 통로로 초청합니다. “아프리카여 영원하라!”♠

“굽이 굽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김선자

(코트디부아르 선교사, 뉴욕장신 B.Th.재학)

남편과 저는 1992년 첫 선교지인 모리타니로 파송 받아 10년을 사역하다가, 2002년 이동하여 이제 만 13년을 이곳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향한 열정이 넘쳤던 남편은, 서부아프리카에 교회를 더 개척하여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남편의 생각과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10년 된 선교나무를 뽑아서 코트디부아르에 옮겨 심어 자라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동안 남편을 통해 열심히 기도로 새로운 씨앗을 심게 하시더니, 자라는 것도 못보고, 코트디부아르에 온지 7년째 접어들던 해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던 저를 그동안 남편을 통하여, 훈련 받게 하였고, 남편이 심어놓은 기도의 열매를, 나약한 저를 통하여 거두게 하셨습니다. “기차길을 따라 10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했던 남편 말을 기억하셨는지, 주님께서서는, 저를 통해 기차역 근처에 살고 있는 아베종족의 시골 마을들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건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의 작은 믿음을 아시면서도, 늘 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일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남편을 통하여 배웠던 대로, 주님의 전에는 가장 좋은 것,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려고 기도할 때마다, 친히 솥양을 준비해 주셨고, 친히 건축하시며, 성전 안에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말라리아의 고열로 고통스럽고 힘들어 할 때에도 주님께서서는 다시 살려서 일으켜 주셨고, 내전 이후 교회가 강제 철거되어 낙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시골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해주셨으며, 영업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골에 교회 건축하러 다닐 때,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모두가 고꾸라졌지만, 다치지 않도록 진흙탕 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공사를 끝마치게 하셨습니다.

2011년 7월 정부가 바뀌면서 교회가 강제 철거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주님은 저를 빌리지로 향하게 하였고, 쓸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진흙탕길이 깊게 파여서 대중교통 차량이 없고, 영업용 오토바이 뒤에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저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건축자재는 중간도시에서 사서 싣고 들어가고, 물건을 사가지고 갈 때는 임대트럭에 함께 타고 가면서도, 차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기도 하였습니다. 중간에 차가 고장 나서 못가면, 도둑과 강도들에게 물건을 빼앗길 수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 주셨고, 건축할 때는 자동차가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 후에 주님께서서는 보너스로 튼튼한 자동차를 주셔서 지금은 편리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숲속 길을 달릴 때, 백인이(여기서는 동양인을 백인으로 인식함) 오토바이 뒤에 타고 공사하러 다닌다고 놀라더니, 이제는 좋은 차를 타고 빌리지 들어가니 또 한 번 놀라더군요. 앞으로 나의 멧쟁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저와 빌리지 주민들을 또 놀라게 하실지 기대가 되었는데, 더 깊숙한 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셔서 2015년 1월에 헌당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교도소 사역도 허락해 주셔서, 현지인 목사님과 함께 매월 한번 복음전파와 구제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 곳을 갈 때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첫 선교지, 광야학교 모리타니 사막에서의 황량했던 나날들, 그리고 남편을 통하여 고된 훈련을 받았던

시절들. 당시는 참으로 힘들었으나 지금 되돌아보니, 그렇게 훈련 받지 않았더라면 목이 곧고 뻗뻗한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아들도 저와 함께, 훈련의 시간을 걸어온 덕분에 지금은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아빠가 싫었고, 하나님 일이 싫어서 요나처럼 도망을 갔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꼬꾸라졌지요. 그때는 입만 열면 아빠의 입에서 녹음기처럼 흘러나오던 성경구절 말씀이 그토록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다시 들을 수 없어 아쉽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선교하셨던 아빠를 존경한다는 고백을,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었을 때, 아들 걱정 안하고, 제가 이곳에서 흥가분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들을 결혼시켜 주셨는데 예비선교사 며느리를 보내 주셨으며, 손녀딸까지 축복으로 주셨으니 이 가정에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달 전에는 제 거쳐 역시 수도 아버장을 떠나 지방 아그보빌로 이사하게 해 주셨는데, 부족한 모습 이대로 더욱더 주님을 섬겨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뉴욕장로회 신학대학 아버장분교에서 공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아버장 한인교회 백성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며, 모든 성도 분들의 배려와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도 못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며, 현지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다듬어져가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아버장 한인교회에 와서 한인들과 함께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므로 영적으로 채워져서 감사하고, 육신을 위하여도 식사 때마다 풍성한 음식을 손수 준비해 주시는 사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글로써 다 표현 할 수가 없으나, 짧은 글로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 아프리카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살며시 선교헌금을 놓고 가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까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부르키나 땅을 밟으며”

노영선

(부르키나 선교사, 뉴욕장신 B.Th.재학)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를 확신하노라”(빌립보서 1:6)

먼저 저희의 사역을 나누기에 앞서 어린시절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시절 저의 꿈은 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어 멋진 여행을 하고 싶은 철부지 소녀였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모든것이 무너지고 상처와 고통, 불안함, 원망이 어린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고 웃음 가득한 가정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 했는지요. 머리 속에 항상 “왜 하필 내 아버지를...”. 나에게는 하늘이었고 자랑이었고 전부였던 착하기만 하셨던 아버지였는데...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고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료되기 까지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난후 주님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고, 어릴 적 꾸었던 막연했던 대사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대사,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꿈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인생의 반쪽을 만나 함께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가정이라는 행복한 울타리에서 선물로 주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던 중 제 마음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호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주님 원하신 일을 하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던 중 교통사고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고통 속에 있을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알팍한 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는 다른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치료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완치가 되었고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 선교사 훈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6개월 필리핀 현지훈련 8개월을 마치고 드디어 아프리카 땅을 밟던 날 그 때 그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프리카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했던 멋진 곳도 아름다운 곳도 아닌 또 다른 광야의 훈련이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 조금은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음에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훈련을 통하여 각자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곳이라 생각하니 이또한 감사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서아프리카 중에서도 가난한나라에 속하며, 문맹률 또한 높아 매우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각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부르키나 제 2의 도시 보보디올라소에서 빌라지 사역(시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건기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며 하루에 한끼 먹는 사람들도 있고, 옥수수가 떨어지면 그나마도 먹을 수 없는 시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한 사역이 자체 자립을 통해서 복음과 빵이 함께 갈수 있는 복음 공동체 마을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양계와 모링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수한 품종을 들여와 항생제 없이 건강한 닭을 기를 수 있도록 미생물 발효 사료를 만들어 건강한 닭을 생산하고 있으며, 모링가를 심고 길러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그들에게 먼저 효능을 설명하고 직접 먹어 봄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착점을 통하여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설탕을 많이 먹는 이곳 사람들은 당뇨병이 많은데 저희가 만난 한 여성분도 당뇨로 인해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링가의 효능과 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집에 돌아와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 하였고 한달 후 다시 만난 그녀는 환한 웃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감사하다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치료됨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링가가 (이곳에서는 아르기나플라브르: 천국의 꽃이라 불림, 기적의 나무)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에게 2헥타르 땅을 주셔서 복음의 공동체 마을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곳은 아직 메마른 땅이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가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착한 선교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소망의 나라 부르키나파소”

서혜경

(부르키나파소 선교사, 뉴욕장신 B.Th.재학)

이름조차 생소한 부르키나파소는 서부 아프리카 가나와 토고 위 내륙에 위치에 있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가난한 나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는 푸르른 초원에 야자수, 드넓은 바다, 많은 지하자원 등을 생각하지만 부르키나파소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바나나조차 이웃나라인 코트디부와르에서 수입해먹는 나라이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사우나, 찜질방, 황토방을 365일 공짜로 즐길 수 있는 나라이다. 일년중 6월에서 9월에 내리는 우기철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에 늘 가난에 허덕이며 굶주림과 질병에 허덕이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불러야만 살수 있기에 “하나님! 부르키나파소” 하면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 가게 된 동기는 23년전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가 건축을 했다. 이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땅을 사고 건축하는데는 30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 가족을 사용했고, 교회 건축의 훈련을 시키셨다. 교회 건축을 위해 닦치는 대로 일을 하고, 주님께서는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훈련시키셨던 광야였던 것 같다. 건축하면서 때론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도 많이 들어왔다.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과 믿음을 주셨다. 부르키나파소의 현지인 교회는 흙벽돌에 옥수수대 말린 것을 지붕에 올린 것이 전부다. 그러기에 어떤 때는 뱀도 들어오기도 하고, 우기철에는 무너지기도 한다. 이들은 찜통더위와 갖은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시간씩 춤과 찬양,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 날마다 드리는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 세우시길 원하심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족과 함께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후로, 현지인 목사님들은 우리 집으로 날마다 멀리는 500키로가 넘는 곳에서 교회 건축을 부탁하시기 위해 사진과 편지를 들고 찾아 오셨다. 감당할수 없어 아침금식하며 40일 작정기도를 했다. 작정 기도가 마친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부르키나파소 전역에 320개의 교회를 건축할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건축하기위해 무릎으로 아뢰며, 여러번의 죽을 고비와 말라리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태중에서부터 첫 아이는 주님께 드린다고 하며, 기도로 키웠던 장남, 아들은 축구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잘했음에도 엄마의 서원 기도에 순종했다. 주의 종의 길을 가려던 아이를 20세에 비행기 추락이라는 사고로 주님의 품으로 데려 가셨다. 십의 오조를 했던 아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남들보다 사랑이 많았던 아이였는데 엄마, 아빠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저 천국은 너무도 좋은 곳이라고 말하며, 바로 밑에 동생에게는 흑시라도 나대신 목사님이 되어 죽은 자를 살리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 무덤에 가서 나를 살리는 기도는 하지 말라 라는 말만 남긴채...

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에게 당부 했던말. “어떠한 일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감당할수 있도록 그때 그때마다 힘을 주셨고, 기도의 돕는자들을 붙여 주셔서 군선교, 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을 감당할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기도하며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는 감동이 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은 지방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살며, 성경통독을 시작했다. 예배를 드릴때는 온 몸 다해 춤과 찬양을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이들의 인사 하는 소리를 들으면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작, 말씀이 부족하니 넘어지기가 쉽다. 그럴만한 게 비싼 성경책을 이들이 살수 없고, 배운게 없으니 읽을수가 없고... 작은 DVD를 사고, 성경을 현지어와 프랑스어로 녹음을 해서 유치원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듣게 하였다. 말씀을 알아가니 변화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길을 가야한다. 새벽 5시에 기도를 시작했다. 날마다 3-40명이 출석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를 한다. 마을에 새벽에 찬송이 두차례 울려 퍼진다. 6시, 7시 우리는 그때 나라와 마을을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한다. “유튜브 부르키나파소의 작은 마을” 에 나오는 곳이 그곳이다.

모세가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답을 주신다. 늘 주님께 부족하고, 가진것도 없고, 지혜가 없어서 할수 없어요 라고 변명해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나같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 소망의 나라 부르키나파소가 되길 기대하신다. 어느것 하나 자랑할 것 없고, 흠투성인 우리 가족을 사용해주시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천국의 아이들”

이보람

(코트디부아르 선교사, 건국대학교 졸업, 뉴욕장신 M.Div.재학)

비가 내린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봄길, 여름 밤 풀벌레 소리, 길옆에 핀 코스모스, 아버지가 퇴근길 문혀 오시던 겨울바람 냄새. 계절이 주는 감성과 추억을 간직한 나는 여름 그리고 또 다시 여름뿐인 이곳에서도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여름, 건조한 여름, 비 내리는 여름을 경계 없이 희미하게 헤아려 본다.

아버님은 영화 천국의 아이들의 가난한 주인공 알리, 애잔한 주름을 가진 그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초라한 자전거를 떠올리게 한다. 두 부자가 청소부 일자리를 찾으러 테헤란 부촌에 타고 갔던 낡은 자전거. 그리고 마침내 고장 나 버리는 브레이크는 정돈된 수도 아버님에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도시빈민의 씬 없는 삶과 닮아있다. 나는 이곳에서 야나마(Anyama)와 아보보(Abobo)지역 200여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센터(ECCY: Empowerment center for Children and Youth)를 섬기고 있다.

ECCY는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UNICEF의 2008-2011년 초등교과과정 취학률 보고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의 아동취학률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61.5%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적 결핍 상황에서 아동교육을 비롯한 차세대교육을 향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은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선교가 당면한 과제인 것이다.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학교에 갈 권리를 박탈당한 어린이들의 권리와 기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이다.

몇해 전 타NGO에서 근무했을 때 나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한 일이 있다. 아이들과 함께 교외로 캠프를 다녀오며 바닷가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마을이 헐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집이 헐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철없는 어린 아이들은 그 와중에도 미처 다 못 먹은 점심이 아쉬워 너도 나도 봉지를 들고 남은 음식을 싸기에 바빴다.

마을은 아비규환이었다. 정신이 반쯤 나가 보이는 프로스페의 어머니는 머리를 산발을 한 채 무장군인을 앞세운 불도저에 무너져 내리는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지금도 그 날의 오후를 떠올리면 실재했던 일이라기 보다는 단편적인 꿈들이 기억나듯 조각처럼 떠올려 질뿐이다. 그만큼 순식간에 일어났던 오후였다.

새 정부의 야심찬 도시계획 앞에 일처리는 여느 때와 다르게 모처럼 빨랐고 마을 주민 4000여명은 단 2 주 만에 모두 불도저에 밀려 피난민이 되어버렸다. 사실 그 마을은 그들이 돈을 주고 산 그들 소유의 땅이 아니었다. 오래 전 대학이 담을 치고 밖으로 방치한 땅에 바나나 잎을 엮어 움막을 짓고 그러다 나무로 벽을 짓고 지붕을 올리고 그렇게 모여 살기 시작한 무허가 빈민촌이었다. 마을의 셰프는 그렇게 삼십 년을 살았다. 그들 모두 그렇게 그 땅을 터전 삼아 살기 시작했고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땅을 불하받을 수 있을 거라 소망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소망이 헛되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프로스페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증명하고 있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 나름의 살아남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었다. 그 난리통에 아이들은 버려진 전선과 철물등을 어른들에게 가져가면 천세파프랑(2달러)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돈을 손에

쥐기 위해 다른 마을에 가 멀쩡한 집의 전선들을 끊어 훔쳐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새벽녘 디렉터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끊어진 전선과 호수관을 들고 서 있는 아이들을 내방으로 데려왔을 때 알게되었다.

도둑질을 한 건 아이들이었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이 범죄자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피해자들이었다. 비 새는 단칸방에서 책상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여덟 식구와 뒤엉켜 자며 집안일을 위해 학교를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고 어느날 갑자기 집이 철거당해 길 위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나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가난은 세상에서 그들을 고립시키고 거절당하게 했으며 가볍게 판단당하게 했다. 우리는 식수, 식량, 의료지원 등 당장 눈에 밟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빈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경계에 서 있는 목격자일 뿐 이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잘못인지 부모의 잘못인지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들처럼 나 역시 이곳에서 마주하는 불합리한 상황들 가운데 묻는다. 아이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야 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들에 대하여. 그러한 고민과 질문들을 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ECCY사역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ECCY사역이 단순히 아이들과 그 가정이 요구하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데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센터와 재정이 상위에, 아이들과 가정이 하위에 머무르는 수직적인 구조를 지양하며 아이들과 가정, 지역사회가 센터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스스로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언젠가 꿈을 향해 힘껏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잘 돌아나도록 그저 그들의 ‘배경’이 되어 섬기고 싶다.

부족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일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 드린다. 늘 부족하고 매일 넘어지지만, 온 맘 다해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

“부르키나파소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소진

(부르키나파소 선교사, 뉴욕장신 B.Th.재학)

부르키나 파소는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내륙국이며, 부르키나 파소라는 이름의 뜻은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 라는 뜻이 있다. 이곳 부르키나 파소에 오게 된 동기는 서혜경 선교사님의 돕는 동역자로 오게되었다. 이곳에 도착한지는 2011년 3월이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민주화 바람이 이곳 부르키나 파소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나라 일부 군이 반란을 일으켜 이 나라 전체가 혼란을 겪었다. 한창 불안한 공기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쿠데타 그리고 나라의 불안한 상황들은 이곳과 특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갑자기 잘 끊기지 않던 전기가 자주 나가고, 인터넷도 잘 안 되었다. 서 선교사님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사를 하자고 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살던 곳에서 8km 떨어진 벨빌(센터가 있는곳)이라는 지역인데 그 곳엔 수도도, 전기도 센터 건축도 완공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나 라는 의문이 생겼었지만, 그 의문을 깨닫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바로 그날 밤부터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집에서 창문을 보면 군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총을 메고 다니며 약탈을 하러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4시간 쉬지 않고 총성이 울렸다. 무서웠다.

쿠데타가 끝나고, 이전 집에 짐을 모두 옮기지 않은 상태라 집지키는 청년이 짐을 가지러 갔다가 총알을 많이 가져왔다. 무슨 총알이냐고 물었더니 이전 집 마당에 떨어진 총알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서 선교사님에게 급히 이사하게 하신 이유를 사태가 추스러진 후 알 수 있었다. 만약, 이사가지 않고 그 곳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텐데 라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는 이곳에서 어린이 사역, 말씀 사역, 밥퍼사역을 하고 있다. 믿는 사람이라도 말씀이 없어 이들에게는 믿음의 깊이가 없다. 이 곳에 지내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글씨를 읽지 못해서, 성경책이 없어서. 여러 언어이기에 잘 알아듣지 못한다. 대부분 구전언어라 같은 단어를 말해도 다를 때가 많고, 서로들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종교에 자유가 있어 우리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이고, 복음에 대해 일단은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밥퍼사역을 하기위해 30km 떨어진 시골로 간다. 일 년에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밥을 먹는 이들이기에 우리가 가는 날에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우리차를 보고 아이들이 달려온다.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교회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교회에 아이들이 오면 땀 냄새로, 씻지 않은 냄새로 가득차지만 어린이들은 땀을 뺨뺨 흘리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한다. 40도의 온도에 높을 때는 45도를 오가는 온도에서도 이들은 그 작은 교회에 창문을 열어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 후끈한 그 공간에서도 온 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에 부끄러울때도, 도전이 되어 질 때도 감사할때도 많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일들 중에 한 예로 교회 앞에서 찬양이 시작이 되어서 그 소리에 혈레벌벌 뛰여오는 아이들에게 손짓을 하며 '어서와, 잘 왔어' 라는 한마디에 아이들은 좋아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이 온다.

밥을 나눠줄 때는 아이들을 위해 한 밥인데 어른들이 속이면서 밥을 숨길 때가 있다. 믿는 사람들인데 왜 속일까? 라고 생각 되어질 때가 있지만, 이들과 같이 이들의 삶속에서 그들의 사정을 보고 알게되니 이해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졌다. 하루종일 밥은 고사하고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을 먹는데, 그것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이들이다. 그러니 밥을 보면 먹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듯 하다. 아이들도 아이이지만 당장 본인들 배가 고프고 집에 있는 식구들이 생각되어지니 말이다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면 아이들은 그 밥을 그 자리에서 다 먹지 않는다. 조금씩 먹고 집으로 가져간다. 그 모습이 신기해 '왜 밥을 안 먹니?' 물어보면 아이들은 배시시 수줍은 미소를 보여준다. 선교사님께 여쭙보니 이 조그만 아이들이 가족을 생각해서 그 한그릇의 밥을 나눠먹으려고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먹지만 한 7~8살 이후의 아이들은 머리에 밥그릇을 이고 집으로 돌아간다. 환한 미소와 함께 말이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그들의 조잘 거리는 소리들,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미소를 볼 수 있는 현장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게 된다.

이들에게 향한 작은 손짓, 이들의 없는 중에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들을 볼 때면 주님이 나에게 수년간 보여주신 모습들이었고 내가 받은 사랑의 모습이였다. 내가 무엇이기에'라는 물음이 생길 때가 많다. 여전히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인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내가 포기하고자하는 마음들이 들 때 마다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손짓을 하시며 '어서와~, 잘 왔어!'라고 하시며 조심히 맘에 소원한 것조차도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체험케 하신다. 이 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으시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비장의 아론과 훌”

오길순(Esther Paek)

(코트디부아르 선교사, 뉴욕장로회 신학대학 졸업, 뉴욕장신 M.Div. 재학)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출애굽기 17:12~13)

지난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아비장에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낀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레로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가 아닐까 싶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아비장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고, 치열한 선교현장인 영적전쟁터에서 ‘여호와 닛시’, 이 강한 승리의 이름을 선포케 하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8절-13절에서 볼 수 있는, 모세의 팔이 되어주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훌륭한 동역자, 두 분의 장로님들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곳 코트디부아르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장로님의 만남을 통해서 아비장에서 목회와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무엇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행2)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아비장한인교회에 이루어감에 있어서, 두 분 장로님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은 늘 큰 힘이자 본이었다.

어려운 이웃을 조용히 섬기고, 내전이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교회를 생명과 같이 지키며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감에 참 기쁨을 누리며,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과 기도로 중보 하는 모습은 동역자가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지 일깨워주곤 한다.

‘전교인의 선교사화, 전교인의 신학공부’라는 백목사님의 아비장한인교회를 향한 비전을 몸소 실천하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좋은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이 두 분의 장로님의 섬김과 열정, 사랑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ECOWAS 15 Vision’ 아래, ‘아비장 한인교회의 사역’을 중심으로 ‘현지인 교회 개척 사역’과 ‘입테시 신학교 사역’에 선교적 전략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힘쓰는 두 분의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약 20년을 바라보는 아비장에서 선교의 기간 동안 때로는 많은 고난과 시련, 박해 앞에 힘들고 낙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이(교인모두) 있었기 때문이다.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던 것처럼, 이 외로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서로 지치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 올려주시는 두 분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있기에 이 선교의 사명의 발걸음이 결코 외롭지 않은, 아니 더욱더 귀하고 값진 행복한 여정이 되리라 생각한다.♠

“전쟁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보양

(뉴욕장로회 신학대학 졸업, 뉴욕장신 M.Div.재학)

2013년 3월 30일 지난 5년간 계속 했던 쌀 나눔 구제사역을 감당하고자 아비장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다. 정치 상황이 불안한 때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평소보다 많은 양의 쌀을 천오백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로 돌아올 무렵 한발의 총성과 함께 모두가 걱정하던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당시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부군과 쿠데타를 일으킨 반군 사이에 치열한 총격전 양상을 띠었다. 도시엔 정적이 감돌았고, 전투에 필요한 자동차를 훔치는 반군의 약탈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상황이 점점 불안해 지며 집에 머물기 보단 교회에 모여 함께 지내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집과 사업장을 현지인 직원들에게 맡기고, 혹시 모를 약탈에 대비해 10여 대가 넘는 트럭의 바퀴 바람을 뺀 후 교회로 피신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며칠이나 계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인들과 함께 시작한 피신생활은 18일간이나 계속되었다. 해가 떠있는 낮 시간에는 두 군대의 총격전은 총소리만 요란할 뿐 직접적인 피해는 없기에 비교적 성도들과 얘기도 나누며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라이베리아에서 여러 차례 전쟁을 경험했기에 해가 지면 어둠을 무기삼아 벌어지는 약탈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잠을 청하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교회 근처의 주택들이 한 집 한 집 약탈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며, 저녁마다 가슴을 졸이고 침묵을 지키며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요란한 초인종 소리에 “드디어 우리 교회에도 올 것이 왔나보다” 생각하며 대문 쪽으로 모든 촉각을 세웠다. 웅성대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단 소속 현지교회 목사님의 사모님과 10여명 정도의 성도들이었다. 사모님은 목 부위에 유탄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도움을 요청하러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로 찾아오신 것이었다. 당시 한인교회는 적십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에 빠르게 적십자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프랑스, 미국, 유엔 등의 개입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전쟁은 조금씩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와 종족 간 전쟁으로 시작된 내전은 시작 14일이 지날 무렵 무법천지 상황에 극렬한 약탈로 치닫고 있었다. 이 기회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빼앗으려는 현지인들은 부모, 형제, 이웃도 없이 닥치는 대로 훔치고, 빼앗고, 심지어는 살인도 불사했다. 이런 약탈은 라이베리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겪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으며 남편과 함께 교회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때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쟁이 시작된 3월 새벽기도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약탈로 가장 공포를 느낄 때쯤 목사님은 출애굽기 12장 23-27절 유월절 부분을 설교하셨다.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활자가 움직이듯 내 심령에 한 자 한 자 꽃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말씀이 운동력 있게 움직이며 내게 믿음으로 심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말씀을 굳게 잡으며 흠어져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pass over 하심으로 지켜주시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무렵 집을 맡겨둔 현지인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동안 두 번 정도 반군이 찾아 왔는데 그때마다 큰일 없이 돌아갔으나 이번엔 군용차 3대를 가지고 와서 대문을 가로 막고 트럭이 많이 있는 동양인 집을 찾으며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총을 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급하게 물어왔다. 이때 남편과 내게 동일한 감동이 있었다. 흥해를 앞두고 서 있던 모세의 상황이었다.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고, 당당히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음을. 그래 지금이 그 상황이구나. 믿음으로 발을 내 딛어야 할 때가...

불안해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남편과 함께 18일 만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갔다. 약탈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였다. 길거리엔 시체가 즐비했고, 정부군은 모두 체포되고 거리엔 제대로 된 군복도 입지 못한 (자신이 죽인 정부군의 군복을 이것저것 걸쳐 입은) 반군들 천지였다. 배고픔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

한각제를 먹은 듯 정신없는 모습으로 마구 총질을 해대고 있었다. 약탈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자는 약탈자뿐이라는 경험 이 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반군의 대장을 찾았다. 다행히 이번 전쟁에서는 유엔이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당시 임시정 부는 유엔의 보호아래 있었기에 유엔 총장과 이곳에 파견된 유엔 대표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상을 해볼 수 있겠다는 지혜가 생겼다. (참고: 반기문 총장과 최영진 대표).

협상은 잘 진행되어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는 대가로 매일 저녁 교회 앞을 지켜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집도 위험한 상황임을 알기에 반군대장이 내주는 차를 타고 급히 집으로 향했다. 불과 교회와 5분 떨어진 곳인데도 그곳 반군은 소 속이 달랐다. 이번 경우는 좀 전에 협상했던 반군대장보다 더 험오스러워 보였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좀 전과 같은 내용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이 난국에 우리 동네를 지켜주려고 당신 부대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힘들고 배 고프냐, 음식도 주고 전화기도 줄 테니 나와 긴밀히 연락하며 이 난국을 헤쳐 나가자. 나는 한국인인데 유엔 총장, 대표 모두 한국인임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음식을 주겠다는 제안에 그는 쉽게 협상에 응했다. 반군대장과 대화하는 내 목소리를 들은 동네 이웃들이 담장 위로 얼 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를 약탈하러 온 군인이 아니고 우리를 약탈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왔으니 걱정 말고 이들이 필요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줍시다.” 도둑질하러 온 자들을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자로 만들었으니,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싶을 만큼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약탈은 한 달 정도 계속되었고, 심지어 어떤 외국인은 네 차례나 약탈을 당할 정도로 극심했지만 우리 교인들은 어떤 피해도 없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으며 ‘왜 이때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을까? 왜 그 말씀이 현실처럼 다가왔을까?’ 많은 의문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말씀과 생활을 접목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협상 덕으로 그 이후론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뉴욕 장로회 신학대는 전쟁 1년 전 시작했고 전쟁이 시작될 무렵 3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전쟁 때문에 1년 미뤄지긴 했으나 은혜 가운데 4년을 잘 마치고 올해 졸업과 함께 M. Div.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순탄치만은 않은 시 간들이었기에 새로 시작한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전쟁도 잘 이겨내고 9명의 학생들이 새로 입학하여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다. 말씀과 생활이 이원화 될 수 있었던 삶을 전쟁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고, 전쟁을 통해 겪은 삶의 깊은 부분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최성은

(중국 북경대학 언어학과 졸업, 뉴욕장신 M.Div.재학)

한국에 있을 때 신랑이 졸업 후 선교 나갈 곳이 아프리카 코트디 부아르라고 들었을 때가 생각 난다. 연애할 때와 결혼 초기 나중에 선교 나갔을 때 아무리 멀어도 동남아 권이겠거니 하고 생각 했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 라를 얘기했을 때 또 그곳으로 가도 괜찮겠냐는 말을 했을때 난 좋다고 대답했었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이 나라에 대하 여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 한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선교사의 삶이 어떤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에 바로 좋다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아갈때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몰라 갈팡질팡 할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나를 훈련시키 시켰지 하고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중국 선교를 꿈꾸고 있었는데 왜 아프리카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궁금증을 품었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시간들을 지내었다.

한국에서 이곳으로 올날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신랑이 장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전으로 사역지를 옮겨 사역하고 목 사안수를 받고 등등 한국에서 이곳 코트디부아르로 떠날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래도 2014년12월이 되도록 나의

마음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동생 마음은 이별에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 였었다. 지금 되돌아 보면 약 10일간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잘 올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셨음을 경험하면서 헤어짐에 전혀 준비가 안되었던 상태에서 잘 올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다. 여러 모양으로 오는 방해들을 경험 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의 삶을 얼마나 좋게 예비해 두셨길래 이렇게 방해세력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아버지장으로 오는 발걸음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다.

이곳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면서 한번도 이곳에 안와본 나로서는 이곳 환경이 어떨까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도착하고 나서 본 풍경은 동남아의 풍경과 비슷했다. 특히 필리핀과 건물모양 나무 등등 모든 풍경들이 눈에 익숙했다. 사람들의 피부 색깔만 다를뿐. 예전에 필리핀 바기오에서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도착 한후 그 때가 생각나면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었나 보다고 생각 하였다.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다. 한국에서 보다 좋은 집과 우리를 위해 여러 모로 힘써주신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들의 손길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렸다. 그러나 이곳에서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설 때가 많이 있었다. 우선 말이 안통하고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못한다는것 또 다니는 것에도 제약이 따름에 답답함을 느끼고 선하지 못한 생각들이 들었던 날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깨닫게 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함을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된 타임 테이블에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장에 온지 3개월 4개월째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지난 3개월을 돌아볼때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다듬어 주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비록 아직 훈련되어질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앞으로의 아버지장 생활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시간 시간들이 기대가 되며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게 될것인가 기대가 되며 또 잘 훈련 되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한다.

수업을 하루하루 해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장에서 뉴욕 장신대 대학원 강의를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린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강의를 들으며 느끼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 수업들 또한 나를 훈련 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백한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는 나이지만 매일매일의 강의를 통해 내 내면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 이자리에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다.

수업 시간에 사모님 권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간증들을 들으며 이런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훈련 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었다. 나또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생활 해야 겠다고 다짐한다. 이곳에서있는 시간 동안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건강해 져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 가는 성은이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며 하나님께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 드리고 내가 잘 훈련 되어져서 이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즐겁게 섬기고 싶다.

이번 신학교 강의를 통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신약개론 시간을 통해 전에는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되었고 이기백 교수님의 출애굽기 강해 설교 시간을 통해 그 시대로 같이 들어가서 그 상황을 통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말씀이 그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고 광야 학교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 되어져서 장자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 대행자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으뜸으로 대해주심 같이 나또한 하나님께 으뜸으로 대해야 하며 십일조 또한 돈만의 십일조가 아니라 내 삶에도 십일조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성경 지리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을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보면서 입체적으로 볼수 있어서 감사했다. 다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며 볼것 같고 나중에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사진으로만 보았던 여러 곳들을 내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공동체 수업을 들으며 교회에서의 공동체가 꼭 있어야 함과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겠다고 생각하며 다시금 건강한 공동체상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장 교회에 함께 하고 있음에 감사드렸다. 앞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또한 건강한 공동체에 대하여 배우고 매 시간시간들을 함께 경험해가는 자리에 있고 싶다. 매순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며 기도한다.♠

코트디브아르 아비장 분교 1회 졸업식 성료!



본교 제 31회 아비장 분교 제1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4월 12일 오후 2시 아프리카 코트디브아르 아비장 한인교회에서 열려 5명의 신학학사(B.Th.)를 배출했다. 이날, 담임 목사와 가족, 친지들 그리고 교우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며 신학사 학위를 김진의 김평일 김태정 오에스더 오보양 학우가 받았다.



KPCA총회가 직영하고 뉴욕·동북·뉴저지 3개 노회가 함께 운영하는 뉴욕장로회 신학대학 아비장 분교 졸업식은 이기백 교수(학감)의 인도와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식을 민경수 교수가 '마리아 같은 마르다(눅19:38-42)'라는 제하의 설교와 기도 백성철 교수(아비장 한인교회)로 진행되었다.

지난 2010년에 개교한 아비장 분교는 그동안 내전으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속에서 4년여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갖게 되었으며, 졸업생들은 모두 교역학 석사과정(M.Div.)에 입학하여 계속해서 검은 대륙의 선교자로 준비하고 있다.♠

뉴욕 장로신학대학(원) 행사안내

<제 32회 학위 수여식 및 졸업예배>

- ◎ 일시 : 2015년 6월 7일 오후 6시
- ◎ 장소 :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제 2회 “학술 세미나” 개최와 “교수 학술지” 발간 예정> 8월 중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2015년 가을학기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KPCA,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NY)

2015년 가을학기 전형일 : 2015년 8월 27일

본 신학대학은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로서 1978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36년간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교수등 훌륭한 영적지도자를 양성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학대학입니다. 본 대학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분은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PCUSA 교단에서도 목회와 선교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 군목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한국에 가실 경우에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주안교회 등이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 이명하여 목회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신학사 (B.Th.) 교역학석사 (M.Div.) 신학석사 (Th.M.)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신앙고백서, 이력서, 서약서 각 1통씩, 추천서 (B.Th는 담임목사, M.Div는 노회장), 전형료 \$50. *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nypts.org)에서 다운로드
입학전형일시	2015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본교 사무실 주소: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전형과목	성경, 영어, 일반상식, 면접.
개 강 일	2015년 9월 1일(화) 오전 9시 본교 강의실 주소 :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강의시간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오후 7시 50분)
원서교부	본교 사무실 :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전화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 http://www.nypts.org
상담문의	학 감 : 이기백 목사 732-266-9013 총무처장 : 임선순 목사 917-754-5220, 718-921-3277

뉴욕 장신대학(원) 재정정보고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은 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기금을 모읍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의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Pay to the order of N Y P T S "

학교 후원기금

번호	헌금하신 분	금 액	헌금일자
31	우은환장로 유재욱 권사	1,000.00	1-29-15
32	정선희 전도사	5,000.00	2-3-15
33	임순자 권사	500.00	3-26-15
34	정선희 전도사	2,000.00	4-9-15
35	유재도 학장	2,000.00	4-23-15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소개



학장 유재도 교수
(교육신학)



학감 이기백 교수
(실천신학)



총무처장 임선순 교수
(역사신학)



김경희 교수
(신약신학)



김건철 교수
(선교신학)



김삼천 교수
(구약신학)



김유태 교수
(신약신학)



김윤권 교수
(구약신학)



김종훈 교수
(실천신학)



김희건 교수
(조직신학)



민경수 교수
(실천신학)



소기범 교수
(영성신학)



손안젤라 교수
(상담신학)



전광성 교수
(구약신학)



백성철 교수
(아비장 분교)

김건철 교수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Th.M.) 영남대(B.A.)
김경희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Th.M., M.Div.) 이화여자대학(M.A.) 서울대(B.A.)
김삼천 교수	Canada Christian College(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김유태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연세대 (B.A.)
김윤권 교수	장로회신학대학원(Th.D cand. M.Div.) 연세대(Th.M. B.A.)
김종훈 교수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D. Min.)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M.Div.) 계명대 (B.A.)
김희건 교수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민경수 교수	Assemblies of God Theological Seminary(D.Min., M.Div.) 서울대(M.A., B.A.)
소기범 교수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손안젤라 교수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Th.M., M.Div.) Drew 신학교수
유재도 교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M) New Brunswick Seminary(M.Div.) 장신대 (B.Th.)
이기백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계명대(B.A.)
임선순 교수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Th.M., M.Div.) 연세행정대학원(M.P.A), 성균관대 (B.A.)
전광성 교수	영국 University of St. Andrew(Ph.D.) New Brunswick Seminary(M.Div.) 연세대(B.A.)
백성철 교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M.Div.) 동국대(B.A.)